

남원 광한루원 춘향관 개관

전시관·영상관 회랑으로 연결... 전시·체험 시설 등 갖춰 볼거리 제공

광한루원 내 춘향관이 11일 개관함에 따라 광한루(보물 제281호)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남원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 춘향관을 철거하고 이전하여 25년 만에 새로 태어난 춘향관은 총 사업비 60억원, 3년의 기간에 걸쳐 완공되었다.

전시관 1동, 영상관 1동을 회랑으로 연결하여 총 689.62㎡ 면적에 전시, 영상, 체험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남원과 함께한 춘향제의 발자취, 광

한루원의 역사, 춘향전의 파생된 공연 예술,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직접 참여한 펼쳐보는 춘향전 및 춘향관련 다양한 유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춘향문화 선양 및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개관식에는 남원시장, 남원시의회 의장 등 남원시 주요 내빈 인사는 물론 춘향문화 관련 각 기관·사회 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춘향관 개관을 기념하는 기획전시전

“춘향전, 역사속으로 나들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인사동 소재 화공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춘향전 고서 30여점을 대여하여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시 기간은 5.9 ~ 6. 30까지 2개월간 관람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남원시는 춘향문화에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며, 춘향의 보고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춘향문화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아산면, '농어촌 복지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2500만원 추가 확보

고창군 아산면 희망나누리가 지역사회 탄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민관협력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산면 희망나누리 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고창군 아산면 희망나누리가 지역사회 탄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아산면 희망나누리는 고창군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농촌 1세대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행복꾸러미 사업과 농촌 2세대 지역주민을 복지 전달공통체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촌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의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전국 10개소 지역 중 유일하게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임에도 주민주도형 복지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산면과 대신면, 율해

는 부안면과 심원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총 4개면에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주민이 복지사업의 제공자이면서 수혜자로서 역할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옥정호 수질 보전 단계별 대책 추진

피암·선거·소규모 하수처리시설등 120억원 투자 계획

임실군이 오는 2035년까지 단계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옥정호 수질보전에 나섰다.

군은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35년도까지 단계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임실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이 11.33㎢로 확대되었고, 옥정호 주변 지역인 운암리, 운정리를 포함한 소규모처리시설 9개소 신설 등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도까지 옥정호 주변 지역에 대해 기존 하수처리시설(6개소, 280톤/일)을 포함하여 2017년도 완공 목표인 운정리 하수처리시설(110톤/일), 옥정호 댐정상화 사업으로 시행

되는 피암, 선거, 학암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017년도 신규 예정사업인 운암리(70톤/일), 운정리(90톤/일) 하수처리시설 등에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다.

또한,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사업은 성수면 오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45톤/일)과 신덕면 하촌 소규모하수처리시설(35톤/일)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공무원교육원 도서실 개방

시민 학습·휴식 공간 제공

남원시 산곡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에게 제공해 온 도서실, 전자책 등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해 시민들의 학습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교육원 도서실은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고 인터넷, 프린터, 복사, 문서스캔, 무선와이파이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코너를 제공하고 국회도서관의 자

료검색과 원문열람은 물론 인쇄도 가능하다.

2009년에 공무원교육원 이전 이후 꾸준히 장서를 확충하여, 현재의 장서는 총25,196권과 전자책 3,170종 소장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교육원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하면 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전자책을 PC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대출하여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남원=유영철 기자



심민 군수, 전통시장 의견 청취

심민 군수가 최근 전통시장이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소통행진'에 나섰다.

11일, 임실시장을 찾은 심 군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심민 군수는 "전통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임실군의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시설물도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두어마을-농식품부 자매결연

마을 가로변 꽃길·화단 조성

임실군 삼계면 두얼마을(대표 김재성)과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는 11일 1차·1차 자매결연을 통한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을 추진했다.

이날 농식품부 전 직원과 두얼마을 전체 주민 등 60여명은 마을 안길 가로변에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며 주민들과 함께 맛있는 새참과 시골밥상으로 짧지만 깊은 정을 나눴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농촌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는 농촌 환경

정화활동으로서, 영농폐기물 수거, 꽃·묘목 식재 등과 같이 환경정비 및 깨끗한 마을가꾸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적인 '농촌클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삼계면 두얼마을은 발전방 들노래 축제로 지난 2015년부터 2년 연속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이며, 농촌복지여성과는 농식품부에서 농촌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로서, 농촌축제 사업으로 인연을 맺게 된 바울과 기관이 그 인연을 키워 나가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에 도움이 되는 농교류로 이어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임실=진홍영 기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밀그림'

고창군, 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밀그림이 나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

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건, 발전, 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에서만나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1번가인사

남원시